

한글과컴퓨터, 개발도상국 한글교육 지원



한글과컴퓨터(대표 백종진, 이하 한컴)는 개발도상국의 한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한국국제협력단(총재 김석현)에 한글 S/W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백종진 대표는 “개발도상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현지 주민들에 대한 한글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아한글을 기증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한컴에서 받은 아래아한글을 네팔, 파푸아뉴기니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세네갈 등 27개국에 파견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에 배포,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한글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손오공, 4월 언리얼토너먼트2004 출시



손오공(대표 최신규)은 오는 4월 14일 PC용 1인칭 슈팅게임(FPS) ‘언리얼토너먼트2004’를 발매한다. 에픽메가게임즈 디지털스트림이 공동 개발하고 아타리가 전세계 배급을 맡고 있는

는 ‘언리얼토너먼트2004’는 언리얼토너먼트시리즈, 언리얼 시리즈 등 기존 언리얼 프랜차이즈에 멀티플레이 요소를 특화시켜 개발 단계부터 게이머들의 관심을 받은 기대작이다. 시리즈 최초로 탐승용 유닛이 등장해 전투기에서 탱크까지 다양한 유닛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손오공은 3월 23일부터 ‘언리얼토너먼트2004’의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다양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성진씨앤씨 전직원 대상 상해보험 가입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전문업체 성진씨앤씨(대표 임병진)는 160여 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웰빙 경영’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성진씨앤씨 직원들은 3월부터 상해 및 사망에 대해 평균 3억원의 보험금을 보장받게 됐다.

이 회사가 든 보험은 주말 교통상해와 스키, 인라인 등 각종 스포츠 레저 활동 중의 사고에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웰빙’ 생활 패턴에 맞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연간 보험료는 1억2000만원으로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성진씨앤씨는 이외에도 분기별 ‘최우수 성진인 상’과 ‘굿맨 상’을 선정해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매월 1회씩 ‘패밀리 데이’를 정해 1시간 조기퇴근을 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탐앤와이즈, 대한통운 웹사이트 개선 프로젝트 수주

Top@wise

탐앤와이즈(대표 안상원)는 대한통운(대표 광영욱)의 웹사이트 개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한통운 웹사이트는 메인 사이트와 택배, 사이버운송, 국제물류, 국제배송, 환경사업, 이사물, 렌터카, 컨테이너 등의 9개 하위 사이트로 구성된다. 대한통운 웹사이트 개선 프로젝트는 대한통운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고객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와 온라인 고객센터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을 주요 구축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우리, 중국서 대형 유통 채널 확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하우리(대표 권석철)는 자사의 중국 현지법인 중남한에기술유한공사(총경리 오재원)가 북경쌍성흥업과기발전유한공사(대표 샤오따밍)와 데스크톱PC용 백신 '바이로봇 엑스퍼트'의 중

국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월 21일 밝혔다. 북경쌍성흥업과기발전유한공사는 1년에 바이로봇 중국어 버전 10만개를 판매할 계획이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북경쌍성흥업이 제품 패키지 제작과 유통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북경쌍성흥업은 인텔·시스코시스템즈·쓰리콤·델·HP 등의 하드웨어와 자동번역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며 시스템통합(SI)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쌍성과기집단의 계열사다.

티맥스소프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미들웨어 '티맥스' 공급

Tmax Soft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재구조사업의 미들웨어로 자사 '티맥스(Tmax)'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은 전국 114개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64개 회원사가 계정계, 정보계 등 기간계와 대외계 업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루 100만건에 달하는 업무처리를 소화하는 대규모 시스템이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시스템 주사업자로 선정, 통합전산망의 재구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하드웨어와 미들웨어는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티맥스소프트 김병국 대표는 "현재 저축은행들도 웹 기반 비즈니스 환경으로 확장, 전환을 검토중이고, 다른 제2 금융권 중앙회들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이번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앞으로 제2 금융권에서도 티맥스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스페이스, 비만측정기로 美 몸짱시장 공략

바이오스페이스(대표 차기철)가 인체의 체성분을 분석해 비만도를 측정해주는 체성분 분석기로 미국시장 개척에 나섰다.

차기철 대표는 "미국 LA에 설립한 바이오스페이스의 미국법인에 50만 달러를 투자, 올해 미국시장에서 체성분 분석기로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연간 5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전체의 61%에 달하고 비만에 관련된 지출 비용도 117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바이오스페이스의 '인바디'는 자기 몸의 수분과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량을 분석해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게 해주는 기기다.



바이오스페이스는 미국에 '인바디'를 판매하기 위해 대리점과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계약대상 물색, A/S망 구축 등 영업 및 사후 관리 작업에 돌입했다. 바이오스페이스는 1996년 창업해 체성분 분석기를 개발, 지난해 매출 140억원을 올린 업체다.

코인텍, 본사 이전

koitech

전사적자원관리(ERP)업체인 코인텍(대표 서진구)은 지난 3월 23일 사무실을 수서에서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6-6 영림빌딩 5층으로 이전했다. 코인텍 서진구 대표는 "새로운 동지에서 명실상부한 ERP소프트웨어 수출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전화번호는 02-405-0600이다.